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새해 메시지

“사랑하는 북 아시아 지역의 형제 자매 여러분”



래스밴드 장로와 자매
제1보좌



와다 장로와 자매
회장



맥쿤 장로와 자매
제2보좌

저희는 저희가 함께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또한 여기 북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과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큰 축복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 지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모사이야서 18:8~9) 지금보다 더 분명했던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야기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의 격려에 따라,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하여”(모로나이서 6:5) 직접 다시 모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업과 그분의 약속

또한 주님의 일이 우리 지역 전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성별하여 유익이 되게 하고(니파이후서 2:2) 어려운 일조차도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신(교리와 성약 122:7) 주님의 약속을 목격했습니다. 작년에 열린 루츠테크 커넥트에 우리 지역에서 훌륭하게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역사 교육이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대회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족 역사 사업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또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쁜 청소년들이 비록 그들 중 많은 수가 교회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지라도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교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나누는 방법을 아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와서 나를 따르라』를 영적인 생명줄로 삼았으며, 가정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주신 메시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교훈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성약에 따라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충실히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빛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

최근에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구주의 명령을 따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기쁘게 나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마태복음 22:27~39) 구주와 그분의 복음, 그분의 교회에서 느끼는 기쁨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나눌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맙시다.(마태복음 5:15) 그 대신, 회복된 복음의 빛을 친구 및 동료들과 나눌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자신의 빛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누려는 작고 단순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성전의 축복

또한 2022년에는 성전이 다시 완전히 개방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서울 성전은 2-B 단계로 이전되어 현재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삿포로 성전과 일본 후쿠오카 성전은 3단계에 있으며 모든 대리 의식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기쁘게도 삿포로 성전은 도쿄 성전 구역에 사는 사람들도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광

지고와 일본 도쿄에 완공된 성전이 올해 헌납될 것으로 낙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배운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에 사는 우리는 대리 의식이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성전이 없어 코로나 기간 동안 성전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몽골 성도들의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충실하고 용감한 몽골인 선교사들은 엔다우먼트의 권능을 입는 축복을 받지 못한 채 봉사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선교 사업을 마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젊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모든 회원들이 성스러운 성전 성약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넬슨 회장이 202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상기시켜 주셨듯이, 성전은 우리의 영적인 기초입니다.

성전은 우리 신앙과 영적인 견고함을 강화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전의 중심에 구주와 그분의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영을 통해 배우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키워 줍니다. 그분의 필수적인 의식들은 성스러운 신권 성약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로 결속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강화해 주는 그분의 권능을 내려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분의 권능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 삶에 대격변이 일어날지라도 자신이 맺은 성전 성약 안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치유하고 강화하는 능력이 이 지역의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을 ... 가져다주실 것”이라는 넬슨 회장의 약속을 신뢰합니다.(러셀 엠 넬슨,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2018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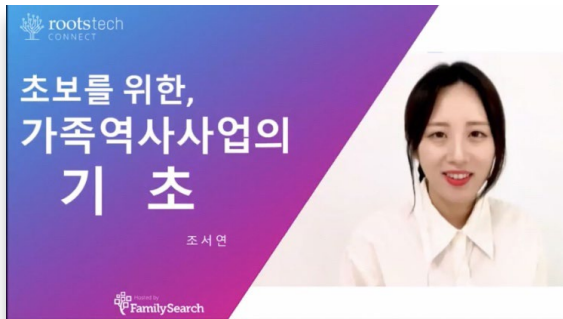
주님을 신뢰함

우리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의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코로나19 기간에도 충실하게 복음대로 생활하고, 성약을 지키고, 서로에게 성역을 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훌륭한 방법을 찾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놓인 여러 산을 신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실 것”이라는 넬슨 회장의 권고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러셀 엠 넬슨,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신앙은 산을 옮길 것입니다”, 2021년 4월 연차 대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 모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며, 구주의 속죄 희생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간증을 겸손히 전합니다. ■



가족 역사 사업 -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방법

전주 스테이크 덕진 와드 조서연 자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교회 안식일 모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성전이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서, 선지자를 비롯하여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우리 조상들을 위한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권유해 왔다. 이러한 반복적인 권유 속에서도 가족 역사 사업은 회원 개개인에게 여전히 숙제같이 느껴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최근 침례를 받고, 가족 역사 사업에 열심히 참여 중인 전주 스테이크 덕진 와드의 조서연 자매를 만나 보았다.

조서연 자매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회사 동료의 권유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조서연 자매가 1년가량 교회를 알아보면서 가장 의아하게 여겼던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가족 역사 사업이다. 조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알아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가족 역사 사업이었습니다. 처음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너무 생소하고 처음 듣는 내용이었어서 이곳이 기독교가 맞긴 한 걸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2020년 9월 침례를 받은 후, 종교 교육원에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배우게 된 조 자매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 혹은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만을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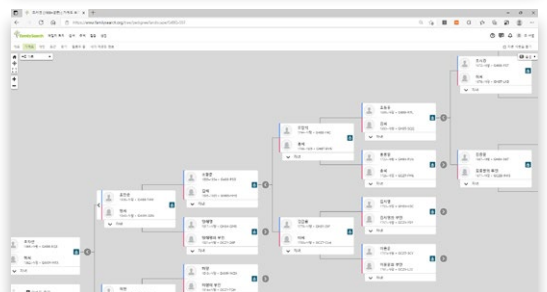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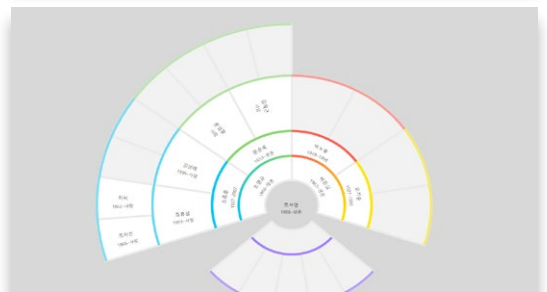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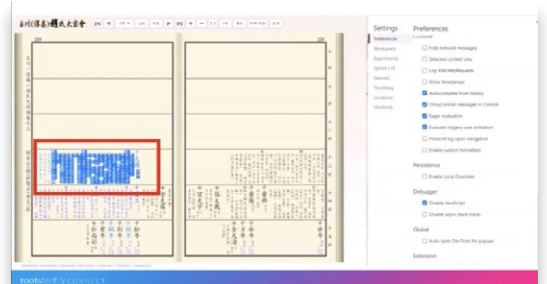
해결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경전에는 ‘너희는 이러한 일들의 체계가, 매우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다만, 복음에 대한 지식없이 죽게 될 죽은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창세 전부터 제정하시고 예비하신 의식과 준비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일 따름임을... 너희에게 일러두노라.’ (교리와 성약 128편 5절)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교 교육원의 최재님께서는 ‘이 지상 세계에서 회복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의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모든 그분의 자녀 중 극히 일부분, 아마 바닷가 염전에 쌓여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 중 딱 한 줌 정도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쪽을 더욱 염두에 두셨을까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무게가 더 클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고,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의 편협한 생각과 의문이 한순간 깨뜨려 졌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처럼 지상에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갔던 선조들과, 앞으로 지상에 오게 될 후손들 또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가족 역사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 자매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을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좀 더 쉽게 가족 역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2022년도 루츠

테크에서 공개될 예정인 이 영상은 회원 개인이 가족 역사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과, 좀 더 쉽게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 위해 족보의 정보를 분할하거나, 구조화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저는 쉬운 한자도 헛갈릴 때가 많아 혼자 자주 민망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8편 18절의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음이니라.”라는 경전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서연 자매는 오늘도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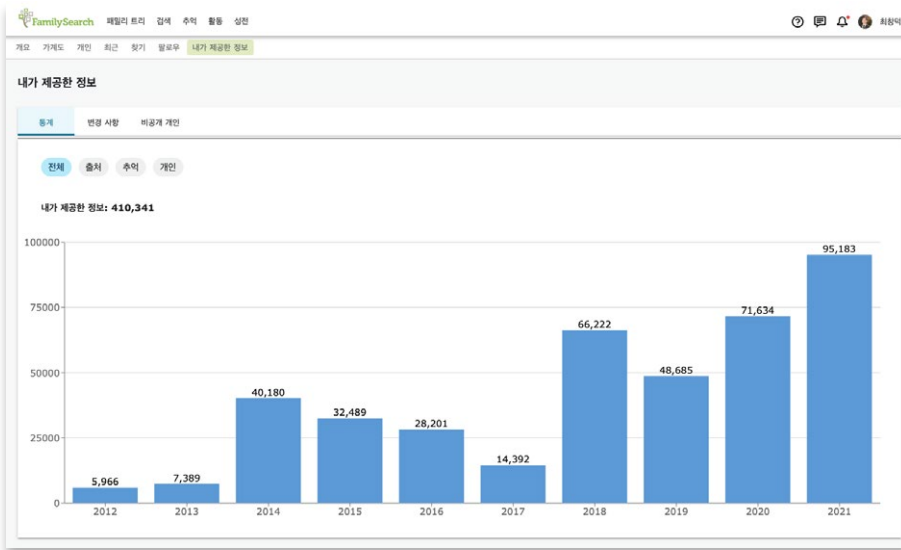


조서연 자매의 가족 역사 기록

조상과 후대의 연결 고리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최창덕 형제

최창덕 형제가 패밀리서치에 제공한 정보



역사 기록을 한다. 저녁 식사를 먹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입력을 한다. 하루 종일 가족 역사 기록을 한다. 나의 조상인 경주 최씨 대동보 10여 종을 모두 입력했고, 요즘엔 아내의 성씨인 경주 이씨 대동보 57권짜리를 입력하는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족보가 잘 기록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족보를 구입할 수 있다. 가족 역사 담당자, 가족 역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도서관, 종친회와 같은 곳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패밀리서치에서 손쉽게 정보를 온라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19 77년 대학교 3학년 때 선교사 영어 회화반에 참여하다 개종을 하게 되었다. 지도자의 권고에 따라 나는 1980년 쯤부터 가족 역사 기록을 시작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막연하게 나의 조상을 찾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 성전도 없었고, 지금과 같이 가족 역사 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었다. 나는 커다란 종이에 조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곤 했다. 교회에서 도움을 구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 역사 기록을 남기며 생기는 어려움들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매번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 가족이 생기고, 직장 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봉사를 하는 동안에도 나는 꾸준히 가족 역사 기록을 해 왔다. 누구도 나에게 가족 역사 기록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묵묵히 이 일을 해 올 수 있었다. 주님은 선조를 찾는 도움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현세적, 영적 도움 또한 풍족히 허락하셨다.

아침 6시경에 기상하면 패밀리서치에 입력을 시작한다. 아침 식사를 한 뒤에는 교회의 가족 역사 센터에 가서 오후 6시까지 가족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시조까지 가족 역사 기록을 끝마친 후 계보 사업을 끝냈다는 회원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에 있는 대다수 선조들의 정보가 패밀리서치에 입력되지 않은 상태다. 모든 회원들이 하루에 한 시간 쉼 시간을 내어 가족 역사 기록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에게 가족 역사 기록은 즐거움 그 자체다. 선조에 관한 기록을 남기며 그들을 기억하고 엘리야의 영을 느끼며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과정 자체가 커다란 즐거움이자 축복이다.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하여 시작한 기록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셀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얻었다. 우리가 조상과 후대의 연결 고리이자 기록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이 땅에 많은 축복이 임하길 바란다. ■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전임 선교사 3명



김민지 자매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서울 선교부



박경진 자매
서울 남스테이크
강남2 와드
캘리포니아 산호세 선교부



임유빈 자매
대전 스테이크
대전2 와드
서울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세종 와드 감독: 박영수 형제(전임: 이용직 형제)
김해 와드 감독: 변재선 형제(전임: 정영백 형제)